

제2기 옴부즈만 위촉 및  
Kick-off 회의

2018. 3. 28(수), 10: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018. 3. 28.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 종 구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I.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장용성 위원장님과 오부즈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6년초에 출발한 금융위 오부즈만이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해보고  
새롭게 진용을 갖추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세계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부즈만 제도는  
정부의 행정규제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금융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II. 그간 추진 성과**

지난 2년 동안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행정규제 개선과  
소비자가 금융이용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93건의 제도개선 건의사항들을 검토하였고,  
그 중 58건은 이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융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등록서류 등을 간소화하였고  
금융소비자들이 편리하게 휴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도  
옴부즈만 회의의 건의에 따라 구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우선적으로 검토 하다 보니  
금융소비자 보호과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 Ⅲ. 향후 추진 방향

---

금융당국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추진을 통해 소비자들이 금융이용과정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소비자 보호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부터 판매 및 이용,  
그리고 금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에 이르기까지  
금융상품 소비 단계별로  
소비자보호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일반 금융소비자들로 구성된 현장메신저,  
금융기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2기 옴부즈만은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불완전판매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정비와  
관행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관점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금융이용과정에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혁신기술과 아이디어가 금융현장에서 현실화되도록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아울러 기존에 수행했던  
금융규제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점검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규제 정비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야만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이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 IV. 맺음 말씀

---

오늘 출범하는 2기 옴부즈만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자료제출이나 의견제출 같은  
행정적 지원은 물론  
옴부즈만 회의의 권고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3자에게 불합리한 행정규제나  
소비자들의 불편 사항들을 보여주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야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몸을 사리지 않겠습니다.  
옴부즈만 여러분의 제안을  
혁신의 발판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융혁신을 위해 옴부즈만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